

억하면 척이지

‘억’ 소리가 절로 나오는 **허리 통증**
분당척병원에서 허리 건강 챙기세요!

- ✓ 척추치료 |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척추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골절
- ✓ 관절치료 | 무릎관절질환, 어깨관절질환, 오십견, 퇴행성관절염, 고관절질환
- ✓ 비수술치료 | F주사치료, 신경성형술, 수핵성형술, 체외충격파 치료

척병원 뉴스레터 분당척병원

관계(關係)

치료하는 자와
치료받는 자의 거리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러워
실수할 수 있고
너무 멀면
무성의한 치료가 된다.
먼 친척이 온 것처럼
관계를 맺으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



www.chukmedical.com

Chukspine Hospital

CONTENTS

2014년 신년호

- 2p 캠페인
관계
- 4p 의료칼럼1
우리 아이 척추가 휘었어요
- 7p 의료칼럼2
겨울 불청객 김장증후군
- 8p 상담실 이야기
상담 간호사 김혜미
- 10p 완쾌환자 인터뷰
이옥연, 최순복 님
- 12p 의료상담
FIMS 시술
- 14p 뉴스
- 15p 의료진 소개

Chukspine Hospital

Newsletter Vol. 18

발행일. 2014년 1월 2일
편집인. 분당척병원 마케팅실
디자인. 디자인한

우리 아이 척추가 휘었어요! 청소년기 척추측만증

간혹 우리 아이들의 골반이 비뚤어졌다거나 어깨가 기울어져 있는 등 자세가 좋지 않아 보여 척추가 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신 적 없으셨지요? 오늘은 성장기 아이의 바른 척추와 문제가 되는 경우의 대표적인 질병인 척추측만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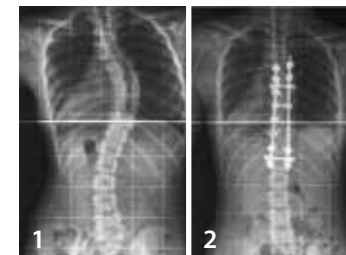
여아의 척추측만증과 엑스레이



옆에서 보았을 때 'S'자 곡선이 사라지면 일자목 혹은 거북목증후군



척추측만증은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에서
약 5~7배까지
더 잘 발생합니다.



1. 여아(14세) 수술 전 엑스레이
2. 수술 후 엑스레이

정상 척추의 모양은 어떠해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사람의 척추는 앞에서 보았을 때는 직선,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는 앞으로 들어가고 등은 뒤로 튀어나온 'S'자 곡선을 그립니다. 그러나 옆에서 보았을 때 'S'자 곡선이 사라지는 것이 일자목 혹은 거북목증후군이고, 앞에서 보았을 때 'S'자나 'C'자처럼 휘어진 경우를 '척추측만증'이라고 합니다.

'척추측만증'은 왜 생기나요?

가장 흔한 측만증인 청소년기 척추측만증은 아직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 하여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 부릅니다.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에서 약 5~7배까지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여자는 10~15세 사이, 남자는 13~18세 사이)에 신장은 급속 성장을 하는데 이 시기에 측만증이 같이 진행하며 나빠집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더욱 각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척추측만증'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척추측만증'의 가장 큰 문제는 '미용상 보기 좋지 않다'입니다. 척추가 휘 만큼 몸매도 나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20~30도 휘 정도는 일반인이 보기에 척추가 휘었다는 걸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척추측만증' 환자에서 요통의 빈도가 일반인들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만약 측만증 환자가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낀다면 디스크 같은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 MRI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척추측만증'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람의 몸은 뒤에서 봤을 때 양측 어깨와 몸통이 비대칭입니다. 또한 허리를 90도 앞으로 숙인 후 뒤에서 봤을 때 등이나 허리에 튀어나온 부분이 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방사선 검사(엑스레이)를 시행하여 만곡의 각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측만증 진행을 막으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20도 미만의 심하지 않은 경우는 척추 운동(코어 운동)이나 도수 치료 등을 통해서 몸의 균형을 맞추는 치료를 합니다. 보통



척추측만증은
10대에 많이 생깁니다.
학업 때문에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척추 강화
운동을 시켜주세요.



도수 치료

방학기간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주 2~3회 집중적으로 코어 운동 및 도수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성장이 많이 남아 있는데 20~40도의 측만이 있거나 정기적인 엑스레이 검사상 점점 더 휘는 경우 측만증이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조기 착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조기는 성장기 척추 변형의 진행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춘기의 학생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학교생활을 위축시킬 수 있으니 전문의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50도 이상 측만을 보이면 정상 자세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척추측만증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각하고 위험한 병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허리가 좀 못생긴 병입니다. 측만증은 대부분 10대에 많이 생깁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죠.

척추측만증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아이를 다독여 주시고 다른 장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셔야 합니다. 또 장시간 앉아서 게임을 하면 주의를 시키시고 학업 때문에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척추 강화 운동을 시켜서 척추 건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66

분당척병원 척추센터는
보다 수준 높은 의료진의 실력과 의료시설로
환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9



척추센터 박건우 원장



겨울 불청객 김장증후군 이렇게 예방하세요

김장을 하는 내내 주부는 장시간 구부리고 앉아 일하기 때문에 '억' 소리가 나올 정도로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일 년에 한 번 꼭 이렇게 김장증후군을 겪어야 할까요? 허리 통증 없이 김장철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D 척추센터 한광욱 원장

김장한 다음날 허리 통증, 예방할 순 없을까요?

김장을 담글 때는 평소 잘 하지 않는 구부리는 자세로 일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김장철이 되면 40~50대 중년 여성분들이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많이 내원하십니다. 하지만 김장증후군은 조금만 주의를 하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절임 배추 사용을 권합니다.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는 것만 생략해도 허리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쪼그려 앉는 자세는 허리에 무리를 주므로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차라리 서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서서 일하는 것은 김장뿐 아니라 다른 가사 활동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의를 했는데도 허리 통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김장 후 요통의 70~80%는 급성 근육통에 의한 허리 통증이기 때문에 며칠 안정하고 쉬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허리 통증이 극심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거나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증상에 호전이 없거나 엉덩이 및 하지 통증이나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에 내원해 진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 디스크 변성증이나 탈출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원에서 빨리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부로서 안 할 수는 없고, 하면 허리에 큰 무리를 주는 김장. 생활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주부님들의 허리 건강을 위해 꾸준한 허리 관리는 물론이고 가사노동에서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쪼그려 앉아 김장을 하면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서
요통을 악화시킨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간호사가 되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상담실 간호사 김혜미입니다. 상담실은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수술 절차와 입원, 수술 전/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보를 드리는 곳입니다.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진료 후 원장님에게 수술 권유를 받고 상담실에 오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에 대해 겁을 내시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간혹 참았던 눈물을 보이는 환자와 보호자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하는 원망부터 수술로 인한 통증과 혹여나 생길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 또는

회복이나 재활 기간이 다소 긴 수술인 경우에는 '직장을 잃게 되지 않을까' 생업을 걱정하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걱정과 불안감으로 만나는 첫 번째 관문이 이곳 상담실입니다. '어려운 의학적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지'라는 머릿속의 생각들에 앞서 '환자분들의 걱

정과 불안을 어떻게 공감하고 이해해서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환자분들은 병원과 의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수술을 결정합니다. 저의 역할은 그 신뢰와 믿음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완쾌 후 활짝 웃으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그런데 최근 제 마음을 울리는 말씀을 해주신 환자분을 통해 '내 역할이 환자분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0대 여성 환자분으로 협착증과 전방전위증으로 인해 허리에 나사고정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수술 후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에 내원하시면서 제 방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수술이 잘되어 많이 좋아졌다"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면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도 "회복이 잘되어 다행이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후 저희 병원 행사인 완쾌환자파티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를 먼저 알아보주시고 일부러 찾아와서 먼저 인사를 해주십니다. 수술 전에 하시던 골프도 다시 시작하고 몸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환자가 처음 병원에 가면 뭘 알겠어요. 병원도 처음이고 의사 선생님도 처음 보는데... 좋은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상담해주면서 너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서 겁내지 않고 수술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 환자분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바쁘다는 핑계로 설명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환자분의 불안과 고통을 간과한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상담실 간호사로서 수술 후 완쾌되어 통증 없이 웃으시는 환자들을 보는 것이 가장 뿌듯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을 공유하고 느낄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환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간호사, 몸과 마음의 대화에 귀 기울이는 간호사, 마음으로 다가가는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점 차가운 바람이 불어 움츠려드는 날씨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되시길 바랍니다.

내 집처럼 편안한 병원 생활을 위한 병실 이용 안내

입원 전에 개인 준비물을 챙겨 오시면 도움이 돼요

- 수건, 화장지, 뒤가 막힌 편한 신발, 물컵, 물통, 치약, 칫솔, 비누, 보호자 이불과 베개 등

면회 시간은 오후 10시까지입니다

- 밤 10시 이후에는 환자의 안정을 위해 면회를 자제해주세요.

하루 세 번 맛있는 건강식이 제공됩니다

- 아침: 7시 30분 ~ 8시
- 점심: 12시 ~ 12시 30분
- 저녁: 오후 5시 30분 ~ 오후 6시

"분당척병원은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 왼쪽 최순복 님, 오른쪽 이옥연 님

퇴원 선물로 드리는 치료 전후 MRI 영상 액자

분당척병원의 성공적인 수술 덕분에 우리 부부 둘 다 완쾌의 기쁨을 누립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0대 부부 이옥연, 최순복 님 두 분 모두 분당척병원 장상범 원장님께 수술을 받으시고 현재 완쾌되어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최순복 님은 진통제를 맞을 정도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심했고, 남편 이옥연 님은 디스크파열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쾌환자 축하파티에도 참가하시며 “분당척병원은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병원”이라고 칭찬의 말씀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분당척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수술받은 후 완쾌

아내의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MRI를 찍고 원장님께 진료를 받으니까 큰 병원에 가야 한다며 분당척병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난 1월 처음 분당척병원에 내원해 장상범 원장님께 진료를 받아보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결혼식이 4월에 잡혀 있어 수술을 당장 할 수 없었죠. 장상범 원장님께서 이런 저희의 사정을 들으시곤 우선 통증이 심하니 4월 전까지 최대한 주사 치료로 버텨보자고 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 안심했습니다.

아내가 수술을 받고 최종확인을 하러 가던 날, 무거운 행거를 차에 실으려고 힘을 쓰다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아내가 진료를 볼 때 함께 진료를 받았더니 디스크파열이라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도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았던 내용을 들고 분당척병원으로 가서 저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진료부터 편의서비스까지, 분당척병원은 직원들의 마인드부터 다른 병원과 차별화

기다리는 동안 커피와 주스를 나눠주는 음료 서비스도 다른 병원에선 볼 수 없었고, 무료 간병인 서비스, 샴푸 시스템, 퇴원할 때 수술 전후 MRI 영상을 액자로 만들어 주는 것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술 전후 액자를 보면 말로만 설명을 듣는 것보다 어떻게 수술이 되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또 아내가 파킨스병이 있어 약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원장님과 약사님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기쁘게 만들어주는 완쾌환자 축하파티

이번에 정자동에서 열린 완쾌환자 축하파티에 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반갑게 맞아 주시고 원장님들도 모두 참석하셔서 각자 자기 환자들을 맞아 주시며 현재 상태를 체크해주시고 이야기 나누는 걸 보니 ‘분당척병원은 정말 남달리 앞서가는 병원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이 무섭고 걱정되어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의심을 버리고 원장님을 믿으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수술 결과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하철 광고에 나오는 척병원 원장님들 사진만 봐도 믿음이 가고 앞으로 아프면 바로 달려갈 병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부가 그랬듯이 척병원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완쾌하실 수 있습니다.

"척척" 치료 Story

주치의 장상범 원장



이옥연 님의 수술 전(왼쪽)후

이옥연 님은 3cm 정도 최소 절개하여 신경 구멍을 넓혀 잘 치료된 경우입니다.



최순복 님의 수술 전(왼쪽)후

최순복 님은 뼈가 앞으로 빠지는 병이 심해서, 내원 당시부터도 수술(유합술)을 해야 하나, 자체분 결혼식 때문에 1주 주사 치료로 견디다가, 식을 무사히 치르시고 난 후 수술받으시어 완치된 경우입니다.

김장 후 재발한 통증! 다시 FIMS를 받을 수 있나요?

Q 분당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어머니 친구 분이 분당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좋은 경과를 보셨다고 하기에 도움이 필요해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는 2008년에 한쪽 척추에 FIMS 시술을 받고 드라마틱하게 좋은 결과를 느끼셨고 일 년 후 다른 한쪽 척추 부위에도 FIMS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1차 때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나름 경과가 좋았습니다. 이후 걷기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저녁마다 스스로 재활운동 치료를 하시면서 외출도 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11월 15일에 김장을 하신 후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지팡이를 짚어야 걸을 수 있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십니다. 근처 정형외과에서 견인 치료와 물리 치료, 혈관 주사를 맞으셨고 한의원에서 왼쪽 고관절과 허리에 침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다행히 증상이 조금 나아져서 고관절 통증은 없어졌고 발을 구부려서 주무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FIMS 시술을 2회 받았는데 다시 받을 수 있는 건지, 만약 다시 받는다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리에 힘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FIMS(척추기능 활성화 치료)



통증 부위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치료합니다.

적응증 :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협착증, 신경의 염증과 부종, 근육 및 관절로 인한 통증에도 폭넓게 이용

치료법 : 문제 부위를 자극하는 치료로 방사선 투시하 혹은 초음파 유도하에 치료를 시행

소요시간 : 5~10분

치료주기 : 1~2주 간격

A 안녕하세요, 비수술센터 원장 서소진입니다.

어머니께서 오래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2008년, 2009년 두 차례 주사 치료를 받으셨고 최근 김장을 하시고 증상이 심화되어 지팡이를 짚고 다니신다는 말씀이군요.

근처 정형외과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증세가 호전 중이긴 하지만 아직 통증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면 진찰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어떤 원인에 의해 그런 것인지 신체 검진과 정밀 검사가 필요할 듯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계획이 세워질 것이고 주사 치료가 필요하면 예전에 받으신 두 차례의 시술과는 무관하게 추가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D

비수술치료센터
서소진 원장



디스크와 관절 질환 궁금증을 '척척' 해결해 드립니다.

가벼운 통증에서 심각한 마비 증상까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디스크와 관절 질환의 궁금증을 가볍게 해소해드립니다. 분당척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한 전문의 상담으로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과 1:1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www.chukmedical.com





2013 분당/용인 지역 완쾌환자 축하파티 & 방창회

분당척병원은 11월 8일 정자역 오페라하우스에서 2013년 두 번째 완쾌환자 축하파티를 개최했습니다. 분당/용인 지역 환우분들과 보호자를 모시고 함께 한 완쾌환자 축하파티는 오랜만에 만나는 주치의와의 즐거운 소통뿐 아니라 환우들과의 즐거운 만찬, 국악인 고금성과 브라스 퍼포먼스의 멋진 축하공연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였습니다.

이번 완쾌환자 축하파티에는 분당척병원에서 환자들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친목 소모임 '분당척병원 방창회'의 일원이신 김중광 님 외 네 분이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완쾌환자 축하파티를 즐겼습니다. 2013년 4월에 703호 입원실에서 함께 생활하며 친분을 맺은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친목을 유지하며 지내고 있으며, "이번 완쾌환자 축하파티에 모두 참석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함께 완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SBS뉴스, KBS 뉴스 방송

'노년의 체중비만과 마른비만에 나타나는 질환' 관련하여 분당척병원 관절센터 운영선 원장이 10월 15일 KBS2 아침 뉴스타임과 10월 17일 SBS 오전 10시 뉴스에 방송 보도되었습니다. 마른비만의 경우 겉보기에는 날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방심하기 쉬어 골다공증 또는 압박골절이 생길 위험이 크다는 내용이었습니



KBS 뉴스 <건강충전> 방송

12월 10일 오전 8시 45분 KBS2 아침 뉴스타임 <건강충전> 코너에 분당척병원 척추센터 김남훈 원장이 '잘못된 자세, 척추 질환에 비만까지'라는 주제로 방송 보도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자세가 허리에 어떤 영향을 주며 이러한 잘못된 자세가 비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습니



김남훈 원장 공개강좌

완전한 가을이었던 10월 16일 수요일 성남농협에서 김남훈 원장의 공개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치료법에 대한 강의와 일상생활에서의 허리관리법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으며, 운동치료법을 알려드리며 참석해주신 분들의 일대일 건강상담까지 함께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척추도 척척! 관절도 척척! 분당척병원

당신의 평생주치의, 척추·관절 치료의 대표의사들을 소개합니다.



대표원장
장상범



척추정형외과 원장
박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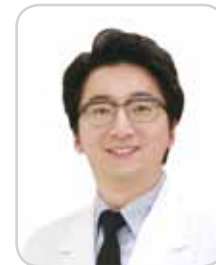
척추신경외과 원장
배채완



비수술치료센터 원장
김환희



척추신경외과 원장
한광욱



비수술치료센터 원장
정지훈



관절정형외과 원장
윤영선



척추정형외과 원장
김남훈



관절정형외과 원장
박종석



관절정형외과 원장
양병세



내과 원장
김경택



비수술치료센터 원장
서소진



영상의학과 과장
이주현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조옥현



비수술치료센터 원장
우상우

- | | |
|-----------|---|
| 척추센터 |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척추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골절 |
| 관절센터 | 무릎관절염, 퇴행성관절염, 어깨관절질환, 고관절질환, 오십견 |
| 비수술치료센터 | 척추비수술치료, 관절비수술치료, 허리/목디스크, 척추협착증, 만성요통 |
| 내과(가정의학과) | 당뇨·혈압 등 만성질환, 비만 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 고지혈증, 소화기질환 |

월~금: 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 토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
www.chukmedical.com 예약상담: 1599-2300

